

秋夕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여호와께 섬기는 복된 가정

예 배 순 서

북 도 시편 100편 4-5절 다 같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 송 가 559장 시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대표기도(예문) 가족중에서

성경 봉독 시편 127편 1절~2절 다 같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니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 씬 나 눔 감사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 인 도 자

찬 송 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나눔



풍성한 결실의 개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명절은 단순히 쉬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넘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 건강, 직장과 학업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지나온 모든 시간에 감사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추석은 한해 동안 땀 흘려 얻은 수확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지난날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가족의 존재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품으며, 서로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표기도문(예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각자의 삶터에서
노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과 식탁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의 크신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시모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앞날과 어른들의
건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기쁨과
늘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모인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다스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가

[559장 /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8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미하심 측량 할 길 없도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 주의 크신 도운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끄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절) 주의 귀한 은혜받고 입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